

努力前進 更一步

[동아일보] (1932년 1월 1일)

1 새해가 온다 疾走하는 時間은 새로이 다시 우리네 二千萬을 喚起하는구나. 世界를 震撼하는 怒濤의 속에 動搖·困弊·驚愕·難境의 一年은 豫期와 希望의 새날에게 자리를 사양하고 물러 앉는다. 오는 한 해는 果然 世界人の 渴望하는 解決과 安定의 新時代를 가지고 오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難境은 다시 難境을 낳고 風雲은 다시 風雲을 吐하여 沮止할 바를 모르는 歷史의 轉換이 奔馬的 速力으로 進展하려는가. 人類社會는 자칫하면 文明의 高峯을 踰라 墜지 못하고 大波紋의 局面에까지 단숨에 굴러들지 아니할까. 이것이 現代人の 疑懼요, 苦悶이요, 恐怖다. 이것은 그러하려니와 돌이켜 우리의 苦悶은 그 무엇 일 것이며, 그들의 希望은 또한 그 어디서 求할 것이냐. 思想의 激浪이 四面으로 우리 心境을 두드리고 隣人들의 제각기 살려는 活動이 우리의 眼界를 活氣 띠게 할 이때에 우리는 무엇으로써 새해의 부름에 應하여야 할까.

2

우리가 元氣 없으니 元氣를 振作함도 좋다. 우리가 勇力이 不足하니 勇力을 鍛鍊함도 可할 것이다. 우리가 團結力이 弱하니 團結을 굳게 함도 必要하다. 우리가 消極的이라면 좀더 積極的이 되자. 우리가 鎖沈하였으면 좀더 能動的으로 움직이자. 우리가 信念이 弱하였으면 좀 더 確固한 信念을 把握하자.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統括하고 이 모든 것의 前提로서 한마디로써 新年의 결심을 나타내자 하건대 오직 '一步'의 高貴한 價値를 把持하자 한다. 이 무엇을 말함이나. 退하여 지키매 一步를 辭讓치 아니하며, 나아가 取하매 一步를 全心으로서 取하자는 것이다. 窒息하는 退的 雰圍氣 속에 惡戰苦鬪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一步의 價値의 正當한 把持야말로 萬世 盤石의 強壘며 이 一步 又 一步의 不屈的 進取야말로 바위를 가르는 나무 '엄'의 偉大한 힘이다.

3

그렇다. 世界는 한 걸음씩 前進한다. 모든 動搖와 反動에도 不拘하고 그 行步는 能히 沮止할 者가 없을 것이다. 經濟的 困難은 一層 그 酷甚度를 加하고

있다. 모든 爲政家들의 '國民的', '舉國一致的', '緊急的' 必死努力에도 不拘하고 失業은 增加하고 通商은 減縮되며 個人的 貧困과 國家財政의 艱難은 아직도 그 復活의 前途가 渺然할 뿐이다. 마치 酷鞭下에 千里를 달린 驛馬와 같이 어떤 者는 이미 困疲하였고 어떤 者는 바로 困疲의 瞬間에 到達한 듯하다. 이 餘波는 本來부터 困窮한 朝鮮의 農村이 아니라 農村의 朝鮮을 掩襲하여 거의 復活의 餘地를 疑心하리만치 大衆的 生活을 困勞하게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再去年的 世界問題며, 去年的 世界問題며, 今年的 世界問題다. 이야말로 朝鮮의 當面한 모든 問題中에 가장 重要的 問題인 同時에 加一層 우리의 努力 精進으로써 局面의 打開를 要求하는 바이다.

4

政治的 葛藤과 産業의 停止狀態로 呻吟하는 歐洲의 白色人이나, 內亂과 飢饉에 苦楚를 겪는 亞細亞의 黃色人이나 世界 어느 구석을 勿論하고 人類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文明의 痼疾은 白日下에 그 醜態를 暴露하고 있다. 黃金國 아메리카에도 失職者가 거리를 메우며 貧困의 印度가 殉教的 受難에 혈덕 거린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 이 時代는 努力 奮闘에 依하여 進展한다는 것을. 人類가 하루 한해 한 世紀에 進取하는 一步의 前進이야말로 歷史上 永久한 紀念塔으로 남는 것이다. 세계는 確實히 나아간다. 朝鮮도 確實히 나아간다. 一躍 九天의 野慾을 가지고 볼 때는 焦燥도 하려니와 꾸준한 努力으로 百年의 大計를 내다보는 者 一步의 無雙한 價値를 大覺할 것이다.

5

果然 우리는 지나간 한 해에 一步를 前進하였는가. 그렇다. 確實히 우리는 나아갔다. 受難中에 있으되 그 受難과 그 忍耐를 通하여 우리의 意識은 一層 堅固하여졌으며, 그 難中에 있어서 大衆의 覺醒은 一層 徹底하다. 嚴冬의 氷雪이 두터웁되 새로이 움트는 生命의 씨를 자라고 있나니 그 나아감이 더디다하여 이를 근심할 것이냐. 오직 한 걸음 한 치의 걸음이 곧 人類社會의 大行進曲에 있어서도 그 歴史的 使命을 忠實히 하는 所以인 것을 알 뿐이다. 우리는 한 걸음을 귀히 여기자. 한 걸음의 진취를 今日의 義務로 하여 새로 맞는 한 해에다 努力 前進 또 한 걸음 地步를 꾸준히 쌓아 나아가자.